

대안적인 도시의 개방적 공동체 모델을 보다

-일본 스즈카 공동체

글 · 이호 greho@hanmail.net

스즈카 공동체 식구들과의 만남

스즈카 공동체는 일본 나고야에서 육로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우리는 나고야 역에서 배를 타고 츠시(津市)로 가서 스즈카 공동체에서 마중 나온 분의 차를 타고 약 20분 정도 간 후 스즈카 공동체에서 마련한 게스트 하우스에 도착했다. 스즈카시는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 기업 혼다(HONDA)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다. 게스트 하우스로 향하다 보니 도로 양쪽에 썰렁하게 붙어 끼진 혼다 노동자들의 숙소가 눈에 들어왔다. 세계경제 침체로 혼다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란단.

방문한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된 스즈카 공동체에 대한 탐구는 처음부터 우리 예상을 빗나가기 시작했다. 스즈카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혼란에 휩싸였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당혹스러워했다. 그 이유는 이들과의 대화가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밝혀졌다.

일본의 아마기시 공동체에서 나온 이들을 주축으로

새롭게 도시에서 실험되고 있는 스즈카 공동체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형태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평소 도시에서 새로운 개념의 개방적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필자로서도 공동체에 대해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스즈카 공동체는 통렬히 일깨워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즈카 공동체는 그 범주를 규정할 수 없는 완전한 개방적 공동체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수도 명확치 않고 공동체의 규범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공동체'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일 것이다. 이들이 스스로를 공동체라 규정하는 기준은 '사람의 변화' '사람 관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관계를 성찰하고, 사회를 성찰하는 과정에 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즉, 스스로 성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공동체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야말로 온전히 개방된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정신을 통해 서로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스즈카 공동체의 형성과 전개

스즈카 공동체를 처음 결성하고 지금도 핵심적으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인근의 야마기시 농장(공동체)에 있던 이들이다. 이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야마기시 공동체에서 생활해 왔다. 야마기시 공동체의 목표는 자연친화적 삶을 통해 모두를 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야마기시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그 삶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야마기시 선생의 저작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양계를 중심으로 한 야마기시 공동체는 실현지(實現地)가 아닌 실험지(實驗地)였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야마기시 공동체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연구를 위해 2000년부터 모임을 따로 시작했다. 그러나 야마기시 공동체는 그러한 모임을 야마기시 공동체 내에서 못하도록 했다. 이에 2001년부터 몇 사람들이 야마기시 공동체 인근의 스즈카시로 이주하였고, 스즈카에서 사람과 사회에 관해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스즈카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동

체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지금의 스즈카 공동체는 그러한 고민들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이들은 사이엔즈 연구소를 만들고 전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등 새로운 공동체운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스즈카로 모여들어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스즈카 공동체가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은 사이엔즈 스쿨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이엔즈 스쿨은,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적 성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활동을 한다고 해도 사람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는 권위나 규칙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이 스쿨은 사람들의 자율적 관계 형성과 사회와의 자율적이고 긴밀한 관계 형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공동체 영성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사이엔즈 스쿨이 있음으로서 AS ONE이라는 회사들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정착할 수 있었다.

사이엔즈 연구소와 사이엔즈 스쿨, 그리고 AS ONE으로 대표되는 회사들은 각각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즈카 공동체 게스트 하우스



사이엔즈 스쿨 연수원



도시락 공장 외부(배달차량의 색상이 이채롭다)



도시락공장 내부

스즈카 공동체의 사회적 실현 기관들

스즈카 공동체의 철학과 영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회사 및 기관들이 스즈카 내에서만 여럿 있다. 이들을 '스즈카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회사 및 기업'이라 표현하기에는 뭔가 스즈카 공동체의 모습을 왜곡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소재목을 '스즈카 공동체의 사회적 실현 기관들'이라 붙였다.

사이언스 연구소와 사이언스 스쿨의 경우에는 명확히 스즈카 공동체에 대한 영성과 철학, 그리고 이상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러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실현기관이라 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AS ONE 커뮤니티를 들 수 있다.

영리 사업체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락 가게이다. 이 회사는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 현재 스즈카 지역에 3개의 지점을 냈다. 이 도시락은 큰 가게에서 파는 도시락에 비해 싼 편이 아니다. 도시락을 만들 때 전혀 기계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재료도 일부 유기농을 비롯해 좋은 것들만을 쓰기 때문이다. 이들의 모토는 '엄마가 만든 도시락'을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에서도 질 좋은 도시락으로 소문이

났고, 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편이다. 보통 하루에 1,000개에서 1,100개 정도 팔린다.

그리고 이 도시락 가게는 지역 내 자립적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도시락 가게들은 농장에서 재배한 야채를 바로 구입하지 않고 대기업에서 자동화 기계로 씻거나 껍질 벗긴 것을 구입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은 농장에서 야채를 구입하여 직접 씻고 썰고 해서 음식을 만든다. 이런 방식은 위생적으로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그리고 도시락 가게의 성공은 AS ONE 농장이 운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농장의 경우 도시락 가게라는 안정된 판매처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에 유리한 점이 있었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유기농 채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립적, 자급적 경제체제는 건설회사의 운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AS ONE 커뮤니티에는 건설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4채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였다. 나중에 이 집들을 방문해서 안 사실이지만, 우리가 만났던 스즈카 공동체 식구들은 모두 이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 건설회사 역시 공동체 식구들의 필요에 조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건축회사와 연관된 부동산 사무소, 실내 인테리어와 주택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가게도 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그리고 스즈카 지역의 핵심 그룹인 혼다 공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하나의 그룹과 같이 연계되어 운영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AS ONE 커뮤니티를 매우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사회적 활동이 단지 영리 기업의 운영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인근 대형 유통매장주가 지주인 비어있는 땅을 무료로 임차하여 주민들의 주말농장과 같은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각종 유실수를 심는 등 또 하나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농장의 운영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공간, 즉 공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는 계속 진화, 발전하는 생명체

스즈카 공동체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당한 당혹감을 나타냈다. 자신들도 그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공동체 구성원이라 여기는데, 그러한 구성원의 수가 몇 명인지 자신들도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스즈카 공동체의 영성과 철학에 동의하는 이들이 상당 정도 확대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

이들은 지금의 스즈카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고정되지 않는 생각과 공동체 등이 계속해서 변화·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난 10년의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드러났고, 이를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공동체의 속성 자체가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듯이, 스즈카 공



판매 준비된 도시락

동체도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발전해 갈 것이다.

스즈카시의 공동체 실험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지금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도시에서의 개방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도 이러한, 그러나 이와 똑같지 않아도 좋은 다양한 공동체 실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실험들이 상호 교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이들이 지향하는 개방적 세계관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 세계관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회운동과도 긴밀히 연결될 것이다.

글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소장